

日本 平安時代の 服飾色彩意匠의 特性

千葉大學 自然科學研究科

李 璟 姬

目 次

I. 緒 言	V. 襲色目の 色彩意匠의 特性
II. 平安時代の 服飾色彩文化의 一般의 特性	1. 襲色目に 대하여
III. 研究方法	2. 襲色目の 類型別 名稱과 出現色
IV. 重色目の 色彩意匠의 特性	3. 襲色目の 色彩特性
1. 重色目に 대하여	VI. 結 語
2. 重色目の 季節別 名稱과 出現色	參考文獻
3. 重色目の 色彩特性	ABSTRACT

I. 緒 言

服飾은 한 시대의 문화적 산물이므로, 服飾意匠에는 당시의 미적 요소의 총체적인 특성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일본은 고대문화의 형성기에 한반도의 선진문물을 수용했고, 그 이후의 시대에서도 한반도와는 隣國인 관계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었으나, 일본 복식에 대한 고찰은 아직 많지 않은 단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平安時代를 중심으로, 日本의 伝統 服飾色彩意匠의 特性을 一考察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平安時代를 대상으로 한 것은, 두가지 목적으로, 하나는 일본의 전통적 색채 의장 특성 중의 하나인 농담색에 의한 표현(絨綱配色)을 平安時代에는 복식에 도입하여 나타내었으므로, 平安時代의 복식을 통하여 일본의 전통적 배색감을 고찰하고자 함이다. 또 하나는 일본의 平安時代에 해당하는 한국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는 한국 복식사에 있어서도 복식유물이 희귀한 시대인

지라, 실제로 이 시대에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복식 색채의장이 행하여졌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한반도의 영향이 컸던 동시대의 隣國의 복식 색채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당시의 한반도의 복식 색채문화를 推察함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 복식의장을 살펴보는데 필요한 자료로는 문헌자료·회화와 같은 간접자료와 당시의 염직유물과 같은 실물자료로 대별할 수 있겠지만, 실물 자료의 경우는 퇴색과 훼손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복원 자료의 중요성이 제기 되게 되는데, 고증에 의거한 복원자료는 훼손된 유물을 대신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복식유물을 복원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색채의 문제이다. 전통 복식의 대부분의 색채가 합성염료를 발견하기 이전의 염색이므로, 천연염료에 의한 것이다. 천연염료란 대부분이 식물의 색소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합성염료와는 달리 복합색소에 의한 침착한 색조를 갖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전통 염색법

의 고층에 의하여 염색된 천으로 복원한 것이 아닌 경우는, 아무리 복식의 형태와 직물의 조직에 있어서 유물의 재현이 되었다 할지라도, 복원자료로서의 가치는 반감된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奈良時代の 복식유물로는 正倉院의 풍부한 유물이 있으나, 다음 시대인 平安時代는 이와 대조적으로, 실물자료가 드물다. 그러나, 平安時代의 염색에 관한 귀중한 문헌자료인 「延喜式」이 전해지므로, 이 「延喜式」의 기록을 근거로 천연염료로 염색한 平安時代의 색채가 數人の 연구가에 의하여 복원 정리되어 있다. 또한, 平安時代의 복식의 색채에 있어서도 당시의 독특한 의장양식인 重色目(かさねのいろめ, 카사네노이로메)를 復原한 復原染布가 제작되어 있어, 수가 적은 유물을 대신하여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平安時代의 復原染布를 資料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平安時代의 服飾 色彩文化의 一般의 特性

고대사회에서 한반도의 성숙한 문화를 도입한 일본은, 奈良時代に 복식을 제도화 하여 冠位制度를 갖추게 되었다. 그 다음 시대인 平安時代(794~1192)는 都邑을 奈良로 부터, 平安京(지금의 京都)으로 옮겨 약 사백년간 화려한 귀족 문화가 지속되었다.

平安時代의 문화의 특징으로는 전 시대인 奈良時代가 唐風文化 模倣의 시대였음에 비해, 遣唐使의 파견 중지(894年)로, 중국의 영향을 逸脫하여 일본 古來의 취미·기호를 근거로 하는 소위 國風文化를 이룬 시대였다.

당시의 상층 귀족은 정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모든 생산은 지방의 豪族에게 맡겼다.

平安귀족들은 그들이 신조로 삼았던 「高貴」·「雅」의 세계를 추구하며,¹⁾ 신변의 사물과 자연을 觀賞讚美하며 지냈다. 또한, 이 시대는 정치권력도 문화도 귀족에게 집중된 시대였으므로, 복식문화의 주체도 역시 귀족들이었다. 귀족들의 생활에 있어서, 복식이 담당하는 역할은 지극히 중요했다. 당시의 귀족계층인 公家の 일기에는 무엇을 입었는가 빈번히 씌여져 있었다.²⁾ 이 시대의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상이 잘 표현 되어 있는 「源氏物語」등을 보아도, 복식은 인물묘사에서 빼 수 없는 조건이고, 더 나아가 입는 사람의 취미와 교양까지를 반영함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복식에 대한 배려는, 입는 장소, 시기, 착용인의 입장, 복식의 형, 재질, 색, 문양등에 관하여 면밀히 고려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배색에 관하여는 각별히 궁리되었다.³⁾ 이와 같은 복식에 있어서의 배색의 궁리가 重色目로 불리우는 服飾의 色彩意匠 樣式이 되어, 남녀의 복식에서 나타난다.

平安時代의 색채에 대한 기록은 앞서 말한대로 「延喜式」에 기록되어 있어, 염색 방법까지는 나와 있지 않더라도, 37색에 이르는 색명에 대한 염료의 종류와 양, 매염제의 종류와 양, 장작의 분량, 염색할 천의 분량등이 기록되어 있어, 平安時代의 색채의 일부를 推察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延喜式」을 통해 본 平安時代의 색채의 특성은 원색보다는 중간색이 발달해 있다고 하는 점이다. 중간색이란 염료와 염료의 交染에 의한 것으로, 平安時代는 이 교염의 수법이 고도에 이르렀다고 말하여지고 있다.⁴⁾ 염료의 사용을 보아도 紅, 紫根, 藍이 많이 사용되어졌고, 따라서 이러한 염료를 사용한 색의 분화가 눈에 띈다.

본인의 일본 전통색에 대한 선행연구⁵⁾를 통해서도, 紫와 綠은 그 출현수와 분화색이 많은 것으로 平安時代를 대표하는 색으로 보았다. 紫의 경

1) 長崎盛輝, かさねの色目(京都: 京都書院), 1988, p.12

2) 小池三枝·谷田闕次, 日本服飾史(東京: 光生館), 1989, p.80

3) 日本服飾史, 前掲書, p.80

4) 上村六朗, 昭和版延喜式鑑(東京: 岩波書店), 1985, p.16

5) 李瓊姬, 復原染布でみる日本伝統色の色調, 日本色彩学会誌, vol 20, 1996, p.59

우 淺紫, 薄紫, 濃紫, 深紫, 淺滅紫, 中滅紫, 深滅紫 등의 무려 7종이나 농담색이 나타나고 있고, 綠의 경우도 淺綠, 薄綠, 中綠, 濃綠, 深綠 등의 5종류의 분화색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에 이처럼 紫와 綠이 다수 출현한것은 紫는 귀족들의 고귀한 신분을 대표하는 색으로, 綠은 自然尊重의 정신을 가졌던⁶⁾ 平安 귀족들에게 자연물을 대표하는 색으로 애용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紫와 더불어 紅도 색감의 優雅함으로, 奈良時代에 이어 귀족들에게 애호되었다.⁷⁾

또한, 綠을 언급함에 있어 특기할 것 중의 하나가 重色目에서는 靑이라는 색명을 써서, 綠을 나타냈다고 하는 점이다. 「延喜式」을 보아도 藍이라는 색명이 나오지만, 이것은 藍으로만 염색한 것이 아니고, 黃堊와의 交染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실제 색상은 綠인 것이다. 이러한 靑과 綠의 혼용은 현대에도 교통신호 등을 지칭하는 말에서 나타나지만, 당시에도 靑과 綠이 혼용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고 추측된다.

이와 같이 고도로 분화된 색채를 이용한 平安時代の 服飾 色彩意匠을 일반적으로 重色目라고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重色目라고 하면 의복의 걸감과 안감의 색을 조화시킨 重色目와, 通称 十二単(じゅうにひとえ, 쥬우니히토에)라고 불리우는 女房裝束의 着物を 겹쳐서 입음으로써 조화를 꾀하는 服飾 色彩意匠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의복의 걸감과 안감의 색을 조화시킨 색채조화를 重色目로, 十二単라고 불리우는 女房裝束의 색채조화를 襲色目(かさねのいろめ, 카사네노이로메)라고 지칭하겠다. 이러한 重色目과 襲色目の 특징으로는, 배색의 類型에 따라 「梅」, 「紅梅」등의 自然界의 草花에서 따온 명칭을 붙이고, 그 명칭에 近似한 배색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때 배색효과는 걸감의 색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안감의 색과의 미묘한 색의 조화를 중시하여, 안감의 색은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겠다. 예를 들면 「梅」라면, 걸감이 白, 안감이 蘇芳인데, 안감의 蘇芳이 비쳐보이지 않을

면 걸감의 白만으로는 도저히 배색의 분홍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重色目과 襲色目は 자연과의 攄—을 목표로 한 배색법이므로, 春夏秋冬의 각 시기의 자연물로부터 따온 배색의 종류가 重色目の 경우는 190종이상, 襲色目は 40종이상 나타나고 있다.

Ⅲ. 研究方法

본 연구의 자료로서는 松本宗久가 일본 전통색을 복원한 「日本色彩大鑑」(全5권)중의 「平安時代の色」(제4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平安時代の色」중에는, 重色目の 사례는 148種이, 襲色目は 41種이 絹織物로 복원되어 실려있다. 이러한 復原染布의 출전으로는 「裝束抄」(しょうぞくしょう, 쇼우조쿠쇼우), 「雁衣抄」(かりぎぬしょう, 카리기누쇼우), 「物具裝束抄」(もののぐしょうぞくしょう, 모노노구쇼우조쿠쇼우), 「四季色目」(しきいろめ, 시키이로메), 「胡曹抄」(こそうしょう, 코소우쇼우), 「藻塩草」(もしおぐさ, 모시오구사) 등의 문헌이다. 이 189種의 각각의 復原染布를 色彩色差計(Minolta CR-300)를 이용하여 측색하고, 그 3회 측색한 평균치를 먼셀기호로 표시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자료를 근거로 색채의 출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본색명과 색상, 톤의 출현분포를 조사하였다. 이때, 분류방법으로는 기본색명은 JIS Z 8102의 물체색의 색명의 표시방법에 준했고<표 1>, 색상과 톤은 ISCC-NBS의 계통색명 구분을 따른 「JAFCA BASIC COLOR CODE」의 계통색명법<표 2>에 의해 분류, 정리하였다. 또한, 배색의 유형은 기본색명을 기준으로 <표 1> JIS Z 8102의 물체색의 색명 구분

色名	범 위	色名	범 위
赤	7RP-9R 미만	靑綠	2BG-2B 미만
黃赤	9R-7YR 미만	靑	2B-9PB 미만
黃	7YR-9Y 미만	靑紫	9BP-3P 미만
黃綠	9Y-8GY 미만	紫	3P-2RP 미만
綠	8GY-2BG 미만	赤紫	2RP-7RP 미만

〈표 2〉 「JAFCA BASIC COLOR CODE」에 의한 계통색명의 기호와 본 논문에서의 표기

색상 기호		본고 표기	톤 기호		본고 표기
PK	PINK	PK	vp	very pale	p
R	RED	R	p	pale	
O	ORANGE	O	vl	very light	l
			l	light	
BR	BROWN	BR	bt	brilliant	bt
OLBR	OLIVE BROWN		s	strong	s
Y	YELLOW	Y	v	vivid	v
OL	OLIVE	OL	dp	deep	dp
OLG	OLIVE GREEN	G	vdp	very deep	
YG	YELLOW GREEN		d	dark	d
G	GREEN			very dark	
BG	BLUISH GREEN		m	moderate	m
B	BLUE	B	lgy	light grayish	gy
V	VIOLET	V	gy	grayish	
P	PURPLE	P	dgy	dark grayish	
			bk	blackish	bk

하여, 같은 색명으로 배색되었을 경우는 同一配色, 異色과의 조화로 이루어졌을 경우는 기본색명의 색상환에서의 위치에 따라, 類似配色, 中差配色, 對照配色, 補色配色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白色과의 조화는 동일배색에 포함시켰다. 분류의 기준은 기본색명의 위치를, 먼셀 칼라 시스템의 10 색상(R, YR, Y, GY, G, BG, B, PB, P, RP)을 각각 10등분함으로써 백으로 나눈 위치에 대응시키고, 그 인접한 정도에 따라 〈표 3〉과 같이 분류하였다. 각각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표 3〉 배색의 유형

配 色			配 色		
		類型			類型
赤	赤紫	類似 類似	靑	赤紫	中差 中差
赤	紫				
黃赤	黃綠	類似 類似	赤	黃綠	對照 對照
黃	綠				
赤	黃	中差 中差 中差 中差	赤	靑	對照 對照 對照 對照
黃赤	赤紫		黃赤	綠紫	
黃赤	紫		黃綠	紫	
黃	綠	中差 中差	綠	赤紫	補色
黃	赤紫				
靑	綠				

IV. 重色目の 色彩意匠의 特性

1. 重色目に 대하여

重色目란, 平安時代의 독특한 복식 색채의장으로, 자연계의 변화에 맞추어 계절별로 의복의 걸감과 안감의 색채조화를 꾀한 것을 말한다. 重色目の 명칭은 春夏秋冬의 각각의 계절별로, 그리고 4계절 通用으로 입을 수 있는 5종류의 배색이 있다. 따라서, 그 명칭도 각 계절을 대표하는 草, 花, 木으로부터 따온 것이 대부분으로, 자연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묘한 색채의 변화를 복식의장에 도입했다고 하는 자연융화의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平安 말기경에는 이 배색이 형식화되어, 春夏秋冬의 색, 축하의 색 등의 배색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계절 각각의 重色目(春 : 43種, 夏 : 20種, 秋 : 39種, 冬 : 6種)와 四季通用(40種)의 重色目, 총148種의 색채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2. 重色目の 季節別 名稱과 出現色

春夏秋冬의 사계절과 四季通用에 나타난 重色目の 명칭은 〈표 4〉와 같다.

〈표 4〉의 배색유형의 표시는 동일배색은 1, 유사배색은 2, 중차배색은 3, 대조배색은 4, 보색배색은 5로 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봄의 重色目の 명칭은 梅, 紅梅, 柳, 桜, 牡丹 등 봄을 상징하는 나무가 주가 되고 있다. 또한, 여름의 重色目の 명칭으로는 菖蒲, 撫子, 苗 등 여름을 상징하는 草花가, 가을의 重色目の 명칭으로는 紅葉, 朽葉, 菊, 栗 등 가을을 상징하는 草木이, 겨울의 重色目の 명칭은 雪, 冰 등 겨울을 상징하는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 四季通用의 重色目の 명칭은 사계절 通用인 만큼, 어느 특정 계절을 연상시키는 명칭이기보다는 색명을 사용한 명칭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重色目の 계절별 명칭과 출현색

NO	名称	表色				裏色				配色 類型
		慣用色名	基本色名	Tone	色相	慣用色名	基本色名	Tone	色相	
春										
1	梅	白	白			蘇芳	赤紫	m	R	1
2	梅重	濃紅	赤	s	R	紅梅	赤紫	s	R	2
3	白梅	白	白			紅梅	赤紫	s	R	1
4	一重梅	白	白			紅	赤	dp	PK	1
5	裏梅	紅梅	赤紫	s	R	紅	赤	dp	PK	2
6	紅梅 ^勺	紅梅	赤紫	s	R	薄紅梅	赤紫	dp	PK	1
7	紅梅	紅	赤	dp	PK	蘇芳	赤紫	m	R	2
8	苔紅梅	紅梅	赤紫	s	R	濃蘇芳	赤	dp	R	2
9	裏倍紅梅	薄紅	赤	s	PK	蘇芳	赤紫	m	R	2
10	柳	白	白			青	綠	m	G	1
11	柳重	薄萌黃	綠	bt	G	薄萌黃	綠	bt	G	1
12	黃柳	薄黃	黃	m	Y	薄青	綠	l	G	3
13	花柳	青	綠	m	G	薄青	綠	l	G	1
14	青柳	濃青	綠	m	G	紫	紫	d	P	4
15	面柳	濃青	綠	m	G	濃青	綠	m	G	1
16	薄柳	白	白			薄青	綠	l	G	1
17	裏柳	白	白			萌黃	綠	bt	G	1
18	桜	白	白			薄色	紫	m	P	1
19	白桜	白	白			黃	青	s	Y	1
20	紅桜	紅	赤	dp	PK	紫	青	m	B	4
21	樺桜	蘇芳	赤紫	m	R	赤花紫	赤	dp	PK	2
22	萬津桜	紫	紫	d	P	海紫	赤紫	m	P	1
23	葉桜	萌黃	綠	bt	G	二藍	紫	d	P	4
24	薄桜萌黃	薄青	綠	l	G	桜	黃紫	m	Y	3
25	桜萌黃	萌黃	綠	bt	G	濃二藍	紫	dp	P	4
26	花葉色	黃	黃	s	Y	青	綠	m	G	3
27	帶莖	紫	紫	d	P	薄青	綠	l	G	4
28	桃	濃紅	赤	s	R	紅梅	赤紫	s	R	2
29	早蕨	紫	紫	d	P	青	綠	m	G	4
30	躑躅	紅梅	赤紫	s	R	青	綠	m	G	5
31	紅躑躅	蘇芳	赤紫	m	R	薄紅	赤	s	PK	2
32	餅躑躅	薄色	紫	m	P	濃蘇芳	赤紫	dp	R	2
33	白躑躅	白	白			濃紫	赤紫	dp	P	1
34	岩躑躅	紅	赤	dp	PK	薄紫	紫	m	P	2
35	山吹	紅	赤	dp	PK	黃	黃	s	Y	3
36	花山吹	薄朽葉	黃	s	PK	黃	黃	s	Y	2
37	山吹重	濃黃	黃	v	Y	薄黃	黃	m	Y	1
38	青山吹	青	綠	m	G	黃	黃	s	Y	3
39	裏山吹	黃朽葉	黃	l	Y	朽葉	黃赤	s	O	2
40	藤	薄紫	紫	m	P	青	綠	m	G	4
41	白藤	薄紫	紫	m	P	濃紫	紫	d	P	1
42	藤重	薄紫	紫	m	P	萌黃	綠	bt	G	4
43	牡丹	薄蘇芳	赤紫	d	PK	濃赤色	赤	v	R	2
夏										
1	若楓	薄青	綠	l	G	薄紅	赤	s	PK	4
2	葵	薄青	綠	l	G	薄紫	赤	m	P	4
3	薔薇	紅	赤	dp	PK	紅	赤	dp	PK	1
4	杜若	二藍	紫	d	P	萌黃	綠	bt	G	4
5	若苗	薄萌黃	綠	bt	G	萌黃	綠	bt	G	1
6	苗色	薄萌黃	綠	bt	G	薄萌黃	綠	bt	G	1
7	蓬	薄萌黃	綠	bt	G	濃萌黃	黃綠	m	G	2
8	菖蒲	青	綠	m	G	濃紅梅	赤	m	R	4
9	菖蒲重	葉種	黃	bt	Y	萌黃	綠	bt	G	3

10	根菖蒲	白	白			濃紅	赤	s	R	1
11	若菖蒲	薄紅	赤	s	PK	青	綠	m	G	4
12	花菖蒲	白	白			薄紅梅	赤紫	dp	PK	1
13	破菖蒲	萌黃	綠	bt	G	紅梅	赤紫	s	R	5
14	花橘	朽葉	黃赤	s	O	青	綠	m	G	4
15	橘	濃朽葉	赤紫	dp	PK	黃	黃	s	Y	3
16	百合	赤	赤	v	R	朽葉	黃赤	s	O	2
17	撫子	蘇芳	赤紫	m	R	青	綠	m	G	5
18	花撫子	紫	紫	d	P	紅	赤	dp	PK	3
19	蟬羽	檜皮	赤	gy	R	青	綠	m	G	4
20	夏菖	青	綠	m	G	紫	紫	d	P	4

秋

1	桔梗	二藍	紫	d	P	青	綠	m	G	4
2	萩	薄紫	紫	m	P	萌黃	綠	bt	G	4
3	萩重	紫	青	m	B	二藍	紫	d	P	3
4	梔	萌黃色	綠	bt	G	萌黃	綠	bt	G	1
5	紫苑	薄色	紫	m	P	青	綠	m	G	4
6	女郎花	黃	黃	s	Y	青	綠	m	G	3
7	藤袴	紫	紫	d	P	紫	紫	d	P	1
8	月草	縹	青	m	B	薄縹	青	l	B	1
9	尾花	白	白			薄縹	青	l	B	1
10	竜胆	薄蘇芳	赤紫	d	PK	青	綠	m	G	5
11	朝顔	濃空色	青	m	B	濃空色	青	m	B	1
12	花薄	白	白			縹	青	m	B	1
13	忍草	薄萌黃	綠	bt	G	青	綠	m	G	1
14	朽葉	山吹	黃赤	s	O	黃	黃	s	Y	2
15	黃朽葉	黃味朽葉	黃赤	v	O	黃味朽葉	黃	l	Y	2
16	赤朽葉	赤朽葉	赤	v	O	青	綠	m	Y	4
17	檜	濃黃	黃	v	Y	薄黃	黃	m	Y	1
18	楡紅葉	蘇芳	赤紫	m	R	黃	黃	s	Y	3
19	紅葉	赤色	赤	v	R	濃赤色	赤	v	Y	1
20	楓紅葉	薄青	赤	l	G	黃	黃	s	Y	3
21	青紅葉	青	綠	m	G	朽葉	黃赤	s	O	4
22	黃紅葉	黃	黃	s	Y	濃黃	黃	v	Y	1
23	紅紅葉	紅	赤	dp	PK	濃蘇芳	赤	dp	R	1
24	振り紅葉	紅	赤	dp	PK	薄青	綠	l	G	4
25	初紅葉	萌黃	綠	bt	G	薄萌黃	綠	bt	G	1
26	檜	朽葉	黃赤	s	O	萌黃	綠	bt	G	4
27	菊	白	白			紫	紫	d	P	1
28	菊重	白	白			薄紫	紫	m	P	1
29	花菊	薄蘇芳	赤紫	d	PK	蘇芳	赤紫	m	R	1
30	白菊	青	綠	m	G	紫	紫	d	P	4
31	黃菊	黃	黃	s	Y	萌芳	綠	bt	G	3
32	苔菊	黃	黃	s	Y	濃青	綠	m	G	3
33	紅菊	紅	赤	dp	PK	青	綠	m	G	4
34	移菊	紫	紫	d	P	青	綠	m	G	4
35	蘇芳菊	白	白			紺青	綠	d	G	1
36	殘菊	黃	黃	s	Y	薄青	綠	l	G	3
37	柑子色	濃朽葉	黃赤	v	O	柑子色	黃	m	Y	2
38	落葉色	濃蘇芳	黃	dp	R	香	黃	p	Y	3
39	小葉色	瑠璃	赤	m	B	薄青	綠	l	G	3

冬

1	枯野	黃	黃	s	Y	薄青	綠	l	G	3
2	枯色	薄香	黃	p	Y	青	綠	m	G	3
3	初雪	白	白			香	黃	p	Y	1
4	雪の下	白	白			薄蘇芳	赤紫	d	PK	1
5	冰重	鳥の子色	黃	l	BR	白	白		R	1
6	椿	蘇芳	赤紫	m	R	赤	赤	v	R	2

四季通用										
1	松重	青	綠青	m	G	紫	紫	d	P	4
2	秘色	瑠璃色	青	m	B	薄色	紫	m	P	3
3	蘇芳の香	蘇芳	赤紫	m	R	黃	黃	s	Y	3
4	火色	紅	赤	dp	PK	紅	赤	dp	PK	1
5	荷荷	蘇芳	赤紫	m	R	縹	青	m	B	4
6	練色	薄練	黃	p	Y	濃練	黃	l	BR	1
7	苔色	濃香	黃	l	BR	二藍	紫	d	P	4
8	濃桑色	黃	黃	s	Y	薄二藍	紫	m	P	4
9	赤色	蘇芳	赤紫	m	R	二藍	紫	d	P	2
10	水色	淺縹	青	p	B	淺縹	青	p	B	1
11	二藍	濃縹	青	m	B	濃縹	青	m	B	1
12	梔子色	黃	黃	s	Y	黃	黃	s	Y	1
13	篠青	青	綠	m	G	青	綠	s	G	1
14	青丹	濃青	綠	m	G	黃	黃	s	Y	3
15	縹	濃縹	青	m	B	薄縹	青	l	B	1
16	辛螺色	香	黃	p	Y	紅	赤	dp	PK	3
17	今様色	紅梅	赤紫	s	R	濃紅梅	赤	m	R	2
18	淺黃	薄紺	青	p	B	薄紺	青	p	B	1
19	木賊	黑青	青	d	G	白	白			1
20	青木賊	薄青	綠	l	G	白	黃			1
21	麴塵	青	綠	m	G	黃	赤	s	Y	3
22	濃香	濃香	黃	l	BR	紅	赤	dp	PK	3
23	濃色	濃紫	紫	d	P	濃蘇芳	赤	dp	R	3
24	香	香	黃	p	Y	香	黃	p	Y	1
25	薄香	薄香	黃	p	Y	白	黃			1
26	黃青裏	黃	黃	s	Y	香	黃	p	Y	1
27	鳥の子重	白	白			濃蘇芳	赤	dp	R	1
28	練杉	紺	青	m	B	蘇芳	紫	m	R	4
29	薄色	薄縹	青	l	B	濃薄色	青	m	P	3
30	瑠璃	空色	青	l	B	空色	青	l	B	1
31	薄青	薄青	綠	l	G	薄青	綠	l	G	1
32	半色	薄紫	紫	m	P	薄紫	綠	m	P	1
33	若綠	青	綠	m	G	薄青	綠	l	G	1
34	萌黃	薄青	綠	l	G	薄萌黃	綠	bt	G	1
35	二つ色	薄色	紫	m	P	山吹	黃	s	O	4
36	円縹	縹	青	m	B	縹	青	m	B	1
37	胡桃色	香	黃	p	Y	白	白			1
38	木欄地	黑	赤	gy	BR	黃	黃	s	Y	1
39	萱草色	朽葉	黃	s	O	朽葉	黃	s	O	1
40	紅薄練	濃紅	赤	s	R	薄紅	赤	s	PK	1

3. 重色目の 色彩特性

1) 각 계절별 출현색의 색명의 분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었던 重色目の 148事例의 全 출현색은 60색이었다. 각 색의 출현율을 계절별로 조사하여, 출현률이 가장 많은 색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봄에는 表色은 白이 9회, 裏色은 靑이 5회 출현한다. 여름에는 表色은 薄萌黃가 3회, 裏色은 靑이 4회 출현한다. 가을에는 表色은 白·黃이 각각 5회, 裏色은 靑이 8회 출현한다. 겨울의 重色目은 출현수가 적으므로, 表色으로서는 白이 2회 출현하고, 나머지 색들은 각각 1회 출현할 뿐이다. 四季通用의 경우는 表色으로는 靑이 4회 출현하고, 裏色으로서는 黃이 5회 출현한다. 이러한 重色目の 출현수가 많은 관용색명을 1위부터 10위까지 조사해보면 <표 5>와 같다.

을의 重色目은 출현수가 적으므로, 表色으로서는 白이 2회 출현하고, 나머지 색들은 각각 1회 출현할 뿐이다. 四季通用의 경우는 表色으로는 靑이 4회 출현하고, 裏色으로서는 黃이 5회 출현한다. 이러한 重色目の 출현수가 많은 관용색명을 1위부터 10위까지 조사해보면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表色으로 가장 많이 쓰인 색은 白色이고, 裏色으로 가장 많이 쓰인 색은 靑色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黃色은 表裏 모두 출현수가 많은 색이다.

〈표 5〉 重色目に 출현수가 많았던 관용색명

順位	色名	면셀기호	기본 색명	톤	색상	출현수		합계
						表	裏	
1	靑	3.0G5.0/6.8	綠	m	G	10	19	29
2	白					19	5	24
3	黃	4.9Y7.9/8.4	黃	s	Y	10	13	23
4	薄靑	3.4G6.5/6.0	綠	l	G	7	10	17
5	紅	0.2R5.8/13.7	赤	dp	PK	9	7	16
6	萌黃	8.8GY6.7/7.9	綠	bt	G	5	9	14
7	蘇芳	6.9RP4.4/9.6	赤紫	m	R	8	5	13
8	紫	7.5P3.2/6.8	紫	d	P	6	6	12
9	紅梅	6.3RP4.8/11.8	赤紫	s	R	5	4	9
	薄萌黃	8.3GY7.6/7.2	綠	bt	G	5	4	9
	薄紫	7.3P4.2/5.5	紫	m	p	4	5	9
10	香	0.1Y7.6/5.1	黃	p	Y	3	4	7
	朽葉	2.7YR6.6/11.4	黃赤	s	O	3	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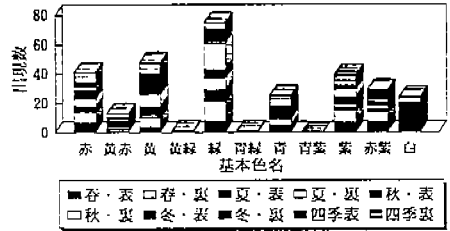
이러한, 重色目的 출현색을 기본색명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봄에는 表色으로는 白이, 裏色으로는 綠이 가장 많이 출현한다. 여름에는 表裏 모두 綠의 출현수가 가장 많다. 가을에는 表色으로는 赤·黃·綠이, 裏色으로는 綠의 출현수가 가장 많다. 겨울에는 表色으로는 黃이, 裏色으로는 綠의 출현수가 각각 2회씩이고 나머지 출현색은 각각 1회씩이다. 四季通用의 경우는 表色·裏色 모두 黃의 출현수가 가장 많다.

따라서 전체적인 기본색명의 출현율을 보면, 유채색으로는 綠의 출현수가 가장 많고, 이어서 黃, 赤, 紫, 赤紫, 靑, 黃赤, 黃綠·靑綠의 순서로 출현하고, 靑紫는 출현하지 않는다. 또한, 무채색으로는 白만이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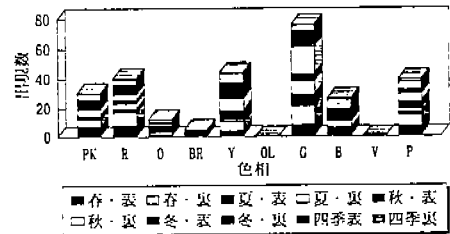
2) 각 계절별 출현색의 색상의 분포

重色目的 각 계절별 출현색의 색상별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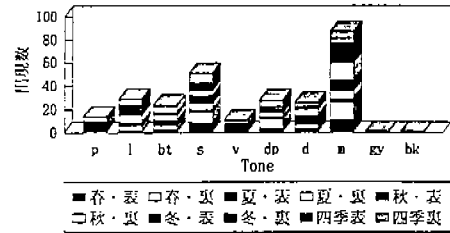
봄에는 表色의 색상은 Red·Green이 8회, 裏色의 색상은 Green이 13회 출현한다. 여름에는 表裏 모두 Green의 출현율이 높아, 表色은 8회, 裏色은



(그림 1) 重色目的 기본색명별 출현분포



(그림 2) 重色目的 색상별 출현분포



(그림 3) 重色目的 톤 별 출현분포

9회 출현한다. 가을에는 表色은 Yellow가 6회, 裏色은 Green이 18회 출현한다. 겨울에는 表色은 Yellow가, 裏色은 Green이 각각 2회씩 출현할 뿐이다. 四季通用의 경우는 表色은 Geen·Blue가 각 9회, 裏色은 Yellow·Blue·Purple이 각 7회 출현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색상의 출현율을 보면 Green의 출현수가 가장 많고, 이어서 Yellow, Purple, Red, Pink, Blue, Orange, Brown의 순서로 출현하고, Olive와 Violet은 출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각 계절별 출현색의 톤의 분포

重色目的 각 계절별 톤의 출현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봄에는 表裏 모두 moderate의 출현율이 높아 表色の 경우는 11회, 裏色の 경우는 15회 출현한다. 여름에는 表色은 brilliant가 5회, 裏色은 moderate가 7회 출현한다. 가을에는 表裏 모두 moderate의 출현율이 높아, 表色은 9회, 裏色은 15회 출현한다. 겨울에는 表色은 pale, light, strong, moderate에, 裏色은 pale, light, dark, moderate에 각 1회씩 출현할 뿐이다. 四季通用의 경우도 表裏 모두 moderate의 출현율이 높아, 表色은 15회, 裏色은 10회 출현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출현수가 가장 많은 톤은 moderate이고, 이어서 strong, light·deep, dark, brilliant, pale, vivid, grayish·blackish의 순서로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각 계절별 출현색의 배색의 유형

重色目の 각 계절별 출현색의 배색의 유형을 조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重色目の 배색의 유형

	同一	類似	中差	対照	補色	合計
春	16	13	5	8	1	43
夏	5	2	3	8	2	20
秋	16	3	9	10	1	39
冬	3	1	2	0	0	6
四季	24	2	8	6	0	40
合計	64	21	27	32	4	148

<표 6>의 계절별 重色目の 배색의 유형을 보면, 여름에 対照配色의 출현율이 높은 것 이외에는 봄, 가을, 겨울, 四季通用의 배색의 유형에서 同一配色의 출현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출현수가 많은 순위는 동일배색, 대조배색, 중차배색, 유사배색, 보색배색의 순서이다.

또한, 重色目の 배색에서 특기할 점은 그 수범에 있어서 자연의 배색을 모범으로 했기에, 아메

리카의 루드가 지적한 중요한 자연계의 색채 조화 법칙인 「自然스런 調和(Natural Harmony)」의 원리와 상응한다고 하는 점이다. 즉, 자연계의 법칙에 합치하는 관계란, 색상환에서 黃에 가까운 색은 밝게, 靑은 어둡게 하는 것과 같은 배색으로 인간에게 가장 친근감이 있는 칼라 하모니인 것이다.⁸⁾

V. 襲色目の 色彩意匠의 特性

1. 襲色目に 대하여

襲色目란 궁정에 봉사하는 女官들의 晴裝束⁹⁾인 女房裝束을 가르키는 것으로, 속칭 十二單이라고 불리운다. 女房裝束의 착장은, 밑으로부터 白小袖의 위에 紅의 打袴를 입고, 그 위에 単衣(ひとえ, 히토에)－五衣(いつつぎぬ, 이즈즈기누)－打衣(うちぎぬ, 우치기누)－表袴(うわぎ, 우와기)－唐衣(からぎぬ, 카라기누)의 순서로 착용하고 허리에 는 裳을 들렀다. 襲色目の 명칭은, 이 중의 五衣의 겹쳐입는 방법에 의하여 이름 붙여진 것이다. 五衣란 원래 袿(うちぎ, 우기치)를 다섯장 겹쳐입는 것으로부터 붙여진 이름이다. 藤原氏의 전성기에는 袿를 15領, 20領을 겹쳐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후에 5領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그것이 五衣라고 하는 대명사가 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五衣의 배색은, 襟·袖 口·裾 등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배색유형으로는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점층적인 것이 많아, 그 부분만으로 보면 단조로우나, 裝束전체의 조화감으로 볼 때에 이것이 전체적인 변화와 통일감을 초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襲色目の 배색의 특징도 重色目에서 처럼 四季의 변화라고 하는 자연환경색의 점층적·대조적 변화에 따르려고 한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이 襲色目は 사람을 장식한 것일 뿐만 아니라, 寢殿과

6) かさねの色目, 前掲書, p.16
 7) 長崎盛輝, 色・彩飾の日本史(京都:淡交社), 1990, p.141
 8) 大井義雄・川崎秀昭, 色彩(東京:日本色研事業株式会社), 1996, p.38
 9) 色・彩飾の日本史, 前掲書, p.148

牛車 등 건축과 차의 장식으로서도 중요했으므로, 그 미적 효과가 추구되어진 곳은 다양했다.¹⁰⁾

2. 襲色目の 類型別 名稱과 出現色

襲色目の 出現色을 배색의 유형별로 나누어 그 명칭을 나타난 것이 <표 7>이다.

<표 7> 襲色目の 유형별 出現色과 명칭

NO	襲色目名稱	慣用色名	基本色名	Tone	色相	配色類型	着用時期
同色							
1	女郎花	女郎花	黃白	v	Y	1	春 春 春 春 春 四季·祝衣 四季·祝衣 四季·祝衣
2	白撫子	白	白			1	
3	若楓	薄萌黃	綠	bt	G	1	
4	牡丹	薄蘇芳	赤紫	d	PK	1	
5	卵の花	白	白			1	
6	柳	白	白			1	
7	薄萌黃	薄青	綠	l	G	1	
8	裏濃蘇芳	蘇芳	赤紫	m	R	1	
9	梅染	白	白			1	
10	花山吹	中山吹	黃赤	s	O	1	
11	裏山吹	黃	黃	s	Y	1	
12	裏倍紅梅	薄紅梅	赤紫	dp	PK	1	
同色濃淡							
1	蘇芳의 匂	白薄蘇芳 極薄蘇芳 薄蘇芳 蘇芳 濃蘇芳 青草	赤 赤紫 赤紫 赤紫 赤 綠	p l d m dp m	PK PK PK R R G	1 1 1 1 2 4	四季·祝衣
2	萌黃의 匂	白薄萌黃 極薄萌黃 薄萌黃 萌黃 濃萌黃 紅草	黃綠 綠 綠 綠 黃綠 赤	p l bt bt m dp	G G G G G PK	1 1 1 1 2 4	
3	紅梅의 匂	白薄紅梅 極薄紅梅 薄紅梅 紅梅 濃紅梅 青草	赤 赤紫 赤紫 赤紫 赤 綠	p m dp s m m	PK PK PK R R G	1 1 1 1 2 4	四季·祝衣
4	紅의 匂	濃紅 紅 薄紅 極薄紅 白薄梅 紅梅草	赤 赤 赤 赤 赤 赤紫	s dp s l l s	R PK PK PK PK R	1 1 1 1 1 2	

5	紫의 匂	濃紫 紫 薄紫 白薄紫 紅草	紫 紫 紫 紫 赤	d d m p p dp	P P P P PK PK	1 2	春
6	白菊	濃蘇芳 蘇芳 薄蘇芳 極薄蘇芳 白薄蘇芳 青草	赤 赤紫 赤紫 赤紫 赤 綠	dp m d l p m	R R PK PK PK G	2 4	
7	紅의 薄樣	濃紅 紅 薄紅 白 白草	赤 赤 赤 白 白	s dp s s	R PK PK PK	1 1	四季·祝衣
8	紫의 薄樣	濃紫 紫 薄紫 白 白草	紫 紫 紫 白 白	d d m m m	p p p p	1 1	
9	雪の下	白 白 紅梅 薄紅梅 極薄紅梅 青草	白 白 赤紫 赤紫 赤紫 綠	s dp m m	R PK PK G	1 5	春
10	若苺蒲	濃青 青 薄青 白 白草	綠 綠 綠 白 白	m m l l	G G G G	1 1	
11	藤	薄色 薄薄色 極薄薄色 白 白草	紫 紫 紫 白 白	m p p p	P P P PK	1 1	春
12	撫子	濃蘇芳 蘇芳 薄蘇芳 白 白 紅草	赤 赤紫 赤紫 白 白 赤	dp m d d dp	R R PK PK PK	1 1	

10) 日本服飾史, 前掲書, p.78

異色濃淡						
1	山吹の匂	濃山吹	黃赤	v	O	春
		薄山吹	黃赤	s	O	
		極薄山吹	黃赤	m	O	2
		黃	黃	l	O	
		青草	綠	m	G	3
2	松重	濃蘇芳	赤	dp	R	四季・祝衣
		薄蘇芳	赤紫	d	PK	
		濃萌黃	黃綠	m	G	
		薄萌黃	綠	bt	G	
		薄萌黃	綠	bt	G	4
		紅草	赤	dp	PK	
3	梅重	極薄紅梅	赤紫	m	PK	春
		薄紅梅	赤紫	dp	PK	
		紅梅	赤紫	s	R	
		紅蘇芳	赤	dp	R	
		薄蘇芳	赤	dp	R	2
		青草	綠	m	G	
		紅草	赤	dp	PK	4
4	紫村濃	濃紫	紫	d	P	四季・祝衣
		薄紫	紫	d	P	
		濃青	綠	m	G	
		薄青	綠	m	G	
		紅草	赤	dp	PK	4
5	菖蒲	濃青	綠	m	G	春
		薄青	綠	l	G	
		白	白			
		濃紅梅	赤	m	R	
		薄紅梅	赤紫	dp	PK	5
		白草	白			
		白草	白			1
6	花橘	濃山吹	黃赤	v	O	春
		薄山吹	黃赤	m	O	
		白	白			
		濃青	綠	m	G	
		薄青	綠	l	G	5
		白草	白			
		白草	白			1
7	躑躅	濃紅	赤	s	R	春
		紅	赤	dp	PK	
		薄紅	赤	s	PK	
		濃青	綠	m	G	
		薄青	綠	l	G	4
		白草	白			
		白草	白			1
8	杜若	薄色	紫	m	P	春
		薄薄色	紫	p	P	
		極薄薄色	紫	p	PK	
		濃青	綠	m	G	
		薄青	綠	l	G	4
		紅草	赤	dp	PK	
		紅草	赤	dp	PK	4
9	餅躑躅	濃蘇芳	赤	dp	R	春
		蘇芳	赤紫	m	R	
		薄蘇芳	赤紫	d	PK	
		濃青	綠	m	G	
		薄青	綠	l	G	4
		白草	白			
		白草	白			1

10	黃菊	濃蘇芳	赤	dp	R	秋
		蘇芳	赤紫	m	R	
		薄蘇芳	赤紫	d	PK	
		薄黃	黃	m	Y	
		薄黃	黃	m	Y	4
		薄紅草	赤	s	PK	
		薄紅草	赤	s	PK	3
異色						
1	色色	薄色	紫	m	P	四季・祝衣
		萌黃	綠	bt	G	
		紅梅	赤紫	s	R	
		黃	黃	s	Y	
		蘇芳	赤紫	m	R	4
		紅草	赤	dp	PK	
		紅草	赤	dp	PK	2
2	二色	薄色	紫	m	P	四季・祝衣
		薄色	紫	m	P	
		黃	黃	s	Y	
		萌黃	綠	bt	G	
		萌黃	綠	bt	G	4
		紅草	赤	dp	PK	
		紅草	赤	dp	PK	4
3	楓紅葉	黃	黃	s	Y	秋
		山吹	赤	s	O	
		薄山吹	黃赤	m	O	
		紅	赤	dp	PK	
		蘇芳	赤紫	m	R	4
		紅草	赤	dp	PK	
		紅草	赤	dp	PK	2
4	紅紅葉	紅	赤	dp	PK	秋
		山吹	黃赤	s	O	
		黃	黃	s	Y	
		濃青	綠	m	G	
		薄青	綠	l	G	4
		紅草	赤	dp	PK	
		紅草	赤	dp	PK	4
5	楓紅葉	薄青	綠	l	G	秋
		薄青	綠	l	G	
		黃	黃	s	Y	
		山吹	黃赤	s	O	
		紅	赤	dp	PK	4
		紅草	赤	dp	PK	
		紅草	赤	dp	PK	1
6	青紅葉	濃青	綠	m	G	秋
		薄青	綠	l	G	
		黃	黃	s	Y	
		山吹	黃赤	s	O	
		紅	赤	dp	PK	4
		蘇芳草	赤紫	m	R	
		蘇芳草	赤紫	m	R	2
7	振り紅粧	濃青	綠	m	G	秋
		薄青	綠	l	G	
		黃	黃	s	Y	
		山吹	黃赤	s	O	
		紅	赤	dp	PK	4
		紅草	赤	dp	PK	
		紅草	赤	dp	PK	1

重色目の 명칭에서 처럼, 變色目の 명칭도 그 착용계절에 따라 자연의 草花에서 따온 명칭이 대

부분이나, 重色目の 명칭과 다른점은, 匂, 薄様, 村濃 등의 명칭이 붙어 배색의 유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襲色目の 배색의 구조를 보면, 五衣의 겹쳐입는 방법에 몇가지 유형이 있어, 동색의 농담으로 하부로 부터 상부로 점차 진하게 겹쳐가는 「匂」(におい, 니오이)式, 匂式의 일종으로 하부 2領을 白으로하는 「薄様」(うすよう, 우스요우)式, 동색을 5領 겹치는 것, 두 종류의 색을 농담으로 겹치는 것, 한 색을 2領씩 3種의 색으로 6領을 겹치는 것, 5領이 전부 다른색인 것 등이 있다. 이러한 襲色目の 배색의 유형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으로한 襲色目の 41例를, 각각의 배색의 구조에 따라, 同色, 同色濃淡, 異色濃淡, 異色の 4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색채특성을 조사하였다.

同色으로 이루어진 襲色目란 五衣의 五領을 전부 같은 색으로 겹쳐 입은 것으로, 同色の 반복으로 인한 강조감과 면적효과를 나타내었다고 생각된다. 본 조사에서는 襲色目 41例중 12例가 同色으로 이루어진 襲色目였다.

同色の 濃淡으로 이루어진 襲色目の 배색의 유형은 두 종류가 있어, 기본색의 濃色, 기본색, 기본색의 淡色으로 점차 흐리게 하여 白色에 가까울 정도의 3단계의 淡色이 되게 한 배색의 형식이 「匂」라고 불리는 배색이고, 또 하나는 濃色, 기본색, 淡色과 白色을 2領 배지한 형식으로 「薄様」라고 불리는 배색의 형식이다. 본 조사에서는 12例가 同色濃淡으로 이루어진 襲色目였다.

異色の 濃淡으로 이루어진 襲色目は 두 색이나, 세 색의 농담색으로 이루어진 배색인데, 중간에 白色이 배치되는 襲色目도 있다. 본 조사에서는 10例가 異色の 濃淡으로 이루어진 襲色目였다.

異色으로 이루어진 襲色目도 두가지 유형이 있어, 한색을 2領씩 3種의 색으로 6領을 겹치는 것과 5領이 전부 다른색인 것등이 있다. 한색을 2領씩 겹친 것은 배색에 있어서 입체감과 면적효과를 나타냈다고 보여지고, 5領이 전부 다른색인 것은 襲色目 중에서도 가장 색채의 변화가 풍부한 배색이

라고 보겠다. 본 조사에서는 7例가 異色으로 이루어진 襲色目였다.

3. 襲色目の 色彩特性

본고에서 조사한 襲色目の 41例의 순 출현색은 30색이었는데, 이를 색명, 색상, 톤에 의한 출현 분포로 집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襲色目の 색명별 출현분포

먼저, 출현수가 많았던 五衣와 單衣의 관용색명을 조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襲色目に 출현수가 많았던 관용색명

順位	色名	면셀기호	기본 색명	톤	색상	출현수
五衣						
1	白					34
2	薄青	3.4G6.5/6.0	綠	l	G	17
3	黃	4.9Y7.9/8.4	黃	s	Y	14
4	蘇芳	6.9RP4.4/9.6	赤紫	m	R	12
5	薄蘇芳	6.8RP6.1/7.4	赤紫	d	PK	10
	濃青	3.2G4.2/6.1	綠	m	G	10
6	薄紅梅	4.9RP5.8/10.5	赤紫	dp	PK	9
	紅	0.2R5.8/13.7	赤	dp	PK	9
7	濃蘇芳	9.2RP3.4/9.8	赤	dp	R	8
8	薄萌黃	8.3GY7.6/7.2	綠	bt	G	7
9	山吹	2.6YR7.1/11.3	黃赤	s	O	6
10	萌黃	8.8GY6.7/7.9	綠	bt	G	5
	薄色	7.1P4.1/5.4	紫	m	P	5
	中山吹	2.5YR6.8/11.3	黃赤	s	O	5
	女郎花	5.8Y8.3/12.4	黃	v	Y	5
單衣						
1	紅	0.2R5.8/13.7	赤	dp	PK	17
2	青	3.0G5.0/6.8	綠	m	G	11
3	白					10
4	薄紅	7.6RP6.6/11.5	赤	s	PK	1
	紅梅	6.3RP4.8/11.8	赤紫	s	R	1
	蘇芳	6.9RP4.4/9.6	赤紫	m	R	1

〈표 8〉의 襲色目の 관용색명의 출현특징을 보면, 五衣에서는 白이 34회 출현하므로 다른색보다 압도적으로 출현수가 많은 것을 보게 된다.

単衣의 총 출현수 41例 중에서는, 紅이 17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고, 이어서 靑이 11회, 白이 10회 출현한다.

(그림 4)는 襲色目の 五衣의 색을, 기본색명에 의한 출현수로 나타낸 것이다. 배색의 유형별로 출현수를 보면, 同色배색의 유형에서는 무채색의 白이 20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는데, 유채색으로는 赤紫의 출현율이 15회로 가장 많다. 同色濃淡의 배색에서는 赤이 15회로 가장 많이 출현한다. 異色濃淡의 배색에서는 綠이 14회로 가장 많이 출현한다. 그리고, 異色の 배색에서도 綠이 11회로 가장 많이 출현한다. 따라서, 襲色目の 전체적인 출현수를 보면 綠과 赤紫의 출현수가 가장 많고, 이어서 白, 赤, 黃, 紫, 黃赤, 黃綠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이때, 靑綠, 靑, 靑紫는 출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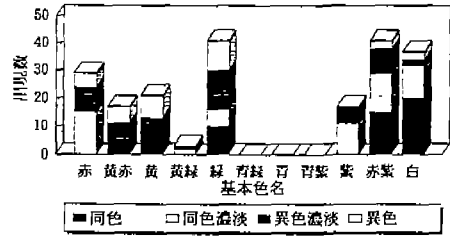
2) 襲色目の 색상별 출현 분포

다음으로 襲色目の 五衣의 출현색을 색상별로 분류하여, 배색 유형별 출현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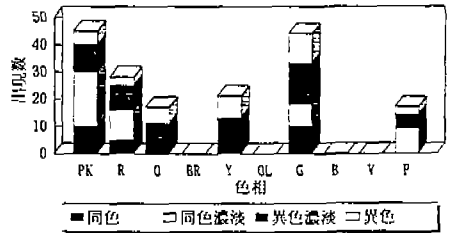
同色배색에서는 Pink와 Green이 15회로, 同色濃淡 배색의 유형에서는 Pink가 20회로, 異色濃淡의 배색에서는 Green이 15회로 異色배색에서는 Green이 11회로 가장 많이 출현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출현수를 보면 Pink가 가장 많이 출현하고, 이어서 Green, Red, Orange·Purple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이때, Brown, Olive, Blue, Violet의 네 색상은 출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3) 襲色目の 톤별 출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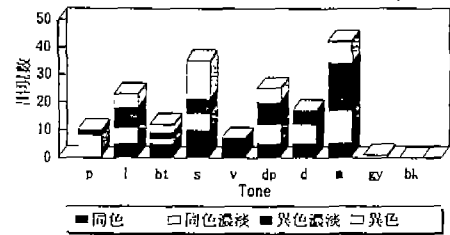
다음으로 襲色目の 五衣의 출현색을 톤별로 분류하여, 배색 유형별 출현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4) 襲色目の 기본 색명 출현수



(그림 5) 襲色目の 배색 유형별 색상 출현수



(그림 6) 襲色目の 톤 출현수

同色배색의 유형에서는 strong이 14회로, 同色濃淡 배색에서는 moderate가 12회로, 異色濃淡 배색에서는 moderate가 17회로, 異色배색에서는 strong이 14회로 각각 출현수가 가장 많다. 따라서, 전체적인 톤의 출현수를 보면 moderate가 가장 많이 출현하고, 이어서 strong, deep, light, dark, brilliant, pale, vivid, grayish의 순서로 출현함을 볼 수 있다. 이때 blackish는 출현하지 않는다.

4) 襲色目の 배색의 유형

襲色目の 배색의 유형을 五衣에 나타난 배색의 유형과 五衣와 単衣와의 배색의 유형의 두가지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 〈표 9〉이다. 이때 五衣와 単衣

<표 9> 襲色の 배색의 유형

五衣의 배색						
	同一	類似	中差	対照	補色	合計
同色	12					12
同色濃淡	8	4				12
異色濃淡		2		6	2	10
異色				7		7
合計	20	6		13	2	41
五衣와 単衣의 배색						
	同一					
同色	5		2	3	2	12
同色濃淡	5	2		4	1	12
異色濃淡	4		2	4		10
異色	2	3		2		7
合計	16	5	4	13	3	41

와의 배색은, 單衣의 색과 五衣의 5색중 單衣와 인접하는 색과의 배색을 조사했다.

<표 9>를 보면 五衣의 배색의 유형에서는 同一配色, 対照配色, 類似配色, 補色配色的 순으로 출현한다. 특기할 것은, 五衣의 배색에 중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동일배색과 대조배색이 주요 배색의 유형인 것을 알 수 있다.

五衣와 單衣의 배색의 유형에서는 同一配色, 対照配色, 類似配色, 中差配色的 순으로 출현한다. 五衣와 單衣의 배색에서도 역시, 동일배색과 대조배색이 주된 배색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襲色目的의 배색의 수법은, 同色濃淡色과 백색의 사용으로 점층적인 그라데이션을 형성하여 안정감과 통일감을 가져오는 한편, 동색계열로 인한 단조로움을 対照色을 배색함으로써 변화감을 주고, 裝束전체의 미적효과를 높인 것을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배색의 수법이 문·스펜서의 색채조화론과도 상통한다고 하는 점이다. 문·스펜서의 색채조화론에서도, 인접색상과 중차색상은 애매함의 영역에 속하므로 美的係數가 낮고, 同一, 類似, 対比가 색상, 명도, 채도 각각의 미적계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¹¹⁾

문·스펜서와 시대는 다르지만, 平安귀족들은 가장 좋은 배색의 모범이라 할 自然界의 配色을 관찰하고 추구하여, 그것을 服飾에 近似하게 再現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던 「華」, 「艷」, 「雅」의 세계를 복식 색채의장을 통하여서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VI. 結 語

이상의 조사를 통하여 平安時代의 重色目과 襲色目에는 다음과 같은 색채의장의 특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1) 自然의 配色調和를 服飾에 再現하였다. 國風 문화를 이룬 平安人은 특유의 색채감정인 自然融和의 정신을 복식에 나타내므로, 重色目과 襲色目的의 명칭에는 四季를 상징하는 草·花·木의 명칭을 붙이고, 그 명칭에 近似한 배색을 함으로써 색채감정과 자연감정이 相応한것을 알 수 있었다.
- 2) 重色目과 襲色目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은 綠色으로, 당시에는 靑이라고 썼으나 실제의 색상은 綠이었다. 톤으로는 중간톤인 모던레이트가 가장 많이 출현한다.
- 3) 重色目과 襲色目的의 配色의 類型으로는 同一配色과 対照配色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다.

參考文獻

- 松本宗久, 日本色彩大鑑, 河出書房新社, 1993
- 長崎盛輝, かさねの色目, 京都書院, 1987
- 長崎盛輝, 色·彩飾の日本史, 淡交社, 1990
- 前田千寸, 日本色彩文化史, 岩波書店, 1983(復刻版)
- 小池三枝·谷田闕次, 日本服飾史, 光生館, 1989
- 佐藤泰子, 日本服裝史, 建帛社, 1992
- 中林正子, 日本の服飾における伝統色彩に関する考察, 平安女学院短大紀要7号, 1976

11) 色彩, 前掲書, p.58

- 村上道太郎, 色の語る日本の歴史, そしえて文庫13
- JAFCA BASIC COLOR CODE, 日本流行色協会, 1979
- 日本の色, 大岡信, 朝日選書, 1990
- 上村六朗, 昭和版延喜染鑑, 岩波書店, 1985
- 明石染人, 日本染織工芸史(上巻), 思文閣出版, 1977
- 武井邦彦, 色彩芸術論, 光村図書, 1983
- 吉岡幸雄, 色の歴史手帖, PHP研究所, 1996
- 大井義雄・川崎秀昭, 色彩, 日本色研事業株式会社, 1996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Costume Color Design in Japanese Heian Period

The Heian Period(794~1192) was the period when luxury and elegance flourished. Gorgeous colors were adopted for the costumes and an elegant assortment of colors prevailed.

Representative of such costumes is Kasane-no-irome. The word Kasane-no-irome, originally came from two colors on both sides of one of the Japanese kimonos called Uchiki. In later times, it turned to indicate the combination effect of colors of several Uchiki's worn in layers one over the other. This paper describes in detail the Kasane-no-irome in both meanings.

In so doing, I distinguish two different kinds of Kasane-no-irome, using a Chinese character 重 for the former, and 襲 for the latter, though both are pronounced Kasane in the Japanese language.

Part one of this paper, which concerns the color combinations of 重, presents typical 148 samples through reproduced dyeing clothes by Matumoto. Part two describes the color combination of 襲, which was so called Junihitoe. It presents typical 41 samples from reproduced dyeing clothes by Matumot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distribution and the structure of color combination in Kasane-no-irome.

Therefore we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in Kasane-no-irome.

1. The color combination of Kasane-no-irome came from the natural color harmony, therefore the names of Kasane-no-irome which adopt the names of flowers and leaves of the four seasons. Accordingly, the seasons for wearing them are fixed.

2. In the hue, the most frequent appearance was green. And in the tone, the most frequent appearance was moderate.

3. In the color combination, the most frequent type were monochromatic combination and contrast combination.